

1. 日本の住宅

1. 일본의 주택

日本の住宅 中川 武

일본의 주택 나카가와 무사시

中川 武

나카가와 무사시

今東京には、伝統的な住宅や工業化住宅、そして高層集合住宅あるいは、建築家が設計した住宅など、実に多様な様式の住宅がある。

현재, 도쿄에는 전통주택과 산업화주택, 고층집단주택 또는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등 다양한 양식의 주택이 있다.

多様性ということだけに着目すれば、これは現代日本住宅が達成した注目すべき特質である。

다양성만을 존다면, 이는 현대 일본주택의 주목해야 할 특징이다.

一方、このような現象は伝統的な住宅の特質が崩壊し、混乱してきたとも言える。

이런 현상은 한편, 전통주택의 특징이 붕괴되고 혼란되어 진 것이라 할 수 있다.

そこで伝統的な特質と、現代の多様性をつなぎ合わせる問題が重要になる。

그러므로 전통적 특징과 현대의 다양성을 연결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現代の多様な住宅には、住み方、空間の性格などに注目すると、共通の4つの特質が窺える。

다양한 현대주택에서 주거방식과 공간성격을 보면 다음 공통된 4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1つ目は門構えからのアプローチ、玄関構え

첫째, 대문으로부터의 어프로치, 현관

2つ目は床形式の多様性

둘째, 바닥양식의 다양성

3つ目は和室に象徴されるように、建物の造り方と使い方が結びついた独特の空間システム

셋째, 화실(口せ: 일본식 방)에 상징된 것같이 축조방법과 사용방법을 결합한 독특한 공간시스템

4つ目は部屋の内部と外部が多様に、そして細やかに結びついた関係

넷째, 방의 내부와 외부를 다양하고 섬세하게 결합시킨 관계

これらの4つの特質はいずれも伝統的なものでありながら、同時に現代の多様な住宅にも共通する性格である。

이런 4 가지의 특질은 모두 전통적인 것으로 현대의 다양한 주택에도 공통되는 성격이다.

塀で囲まれた門を入り、奥深い庭から玄関に導かれるという邸宅は今ではごく限られたものになってきた。

답으로 둘러싸인 대문을 통하여 깊숙한 정원에서 현관으로 인도되는 저택은 현재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しかしこの住宅へのアプローチと玄関構えが日本の住宅では重要視され、様々に工夫されてきた。

그러나 이런 주택에의 어프로치와 현관은 일본 주택에서 중요시되어 다양하게 고려되어져 왔다.

玄関の格子戸にはいろいろな飾りをつけ、玄関サイドには植木鉢や草花などを用意して人々を暖かく迎えてくれる工夫をする。

현관 격자문에는 여러 장식을 달고, 현관 옆에는 나무나 화초등을 준비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도록 한다.

東京 「新高輪プリンスホテル」 村野 藤吾

도쿄 「신타가나와푸린스호텔」 무라노 토우고

近代的なホテルの客室への入り口が、門や玄関構えを象徴したデザインとなっている例

근대적 호텔의 객실 입구가 대문과 현관을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되어진 예

これらの例は大きな敷地がない、あるいは西洋的な形式をとっていても、住宅の顔としての門や玄関構えを特に重要視してきたことを示している。

이 예는 넓은 부지가 아닌 서양 양식이지만 주택의 얼굴로서의 대문과 현관을 매우 중요시한 사실을 보여준다.

多くの日本人が狭い敷地に無理をして門や玄関をつくる一

많은 일본인이 좁은 부지에 무리하게 문과 현관을 만든다 -.

これは日本人の住宅の理想像が門構えや玄関構えにルーツを持っているからである。

이는 일본인이 가지는 주택의 이상형이 대문과 현관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東京郊外 宮崎家

도쿄교외 미야자키가

日本の住宅ではどんなに西洋化や近代化が進んでも、玄関で下足を脱ぎ上履きに履き替えることや、裸足の生活が無くなるとは思えない。

일본주택에서는 어떤 서구화나 근대화가 진행되어도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갈아신는 것과 신발을 벗고 지내는 생활이 없어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これには日本の特に夏の湿潤な気候や木造住宅を主体としてきたこととも関係する。

이것은 특별히 습한 여름의 일본 기후와 목조주택이 주가 되어져 온 사실과 관계있다.

しかしやはり床形式の多様性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

그러나 역시 바닥양식의 다양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奈良市 今西家

나라시 이마니시가

1960年代頃まで全国どこにでも見られた農家や町家—

こうした様式住宅には土間と板床と畳敷きの部屋（座敷）という3つの床形式を持つのが特徴である。

1960년경까지 전국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농가와 상가

이런 양식의 주택에는 도마(텔닛)와 이타유카(나무마루), 그리고 다다미가 깔린 자씨끼라는 세 가지의 바닥양식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土間は生産や商業などの場であるだけでなく、外の世界と住宅内部を結ぶ接点である。

도마는 생산과 판매의 장소일 뿐 아니라 외부 세계와 주택 내부를 이어주는 접점이다.

板床は日本住宅の歴史の上で特殊な意味を持っている。

이타유카는 일본주택 역사상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南方系高床住居はやがて古代貴族の権威の象徴として表現され、清浄な場としての観念が伝統として生き残った。

남방계 고상주거는 고대귀족의 권위의 상징이며, 청정한 장소로서는 관념이 전통으로 남아 있다

同様に畳敷きの部屋も、単に日本人の体質にあった素材というだけではない。

같은 식으로 다다미방도 꼭 일본인의 체질에 맞는 소재라고 할 수는 없다.

武家住宅の様式を、名主の家や上流商家を経由して一般化した畳敷きの部屋は、当初は冠婚葬祭時のみ使用された。

무가주택의 양식이 지주의 집이나 상류상업가를 경유하여 일반화된 다다미방은 초기에는 관혼상제때만 사용되었다.

このように日本住宅の床形式の多様性は、古代貴族の寢殿造りと、中・近世の武家の主殿造りや書院造りという各時代の支配階級の文化を継承しながら融合したものに由来している。

이같이 일본 주택 바닥양식의 다양성은 고대 귀족의 신덴쓰구리와 중, 근대 무가의 슈덴쓰구리와 쇼인쓰구리고하는 각 시대의 지배계층 문화를 계승해가면서 융합한 것에서 유래한다.

日本人はこのような多様な床形式に柔軟、かつ繊細に対応し、豊かな住空間を造り上げてきた。日本人은 이같이 다양한 바닥양식에 유연하면서도 섬세하게 대응하여 풍부한 주거공간을 만들어왔다.

和室は単に畳を敷いただけの部屋ではなく、近世の書院造りでは、武家の接客空間として様式化されたものである。

화실은 단지 다다미가 깔려있는 방이 아니고, 근세의 쇼인쓰구리(쏟팜짚匣)에서 무가의 접객 공간에 의해 양식화된 것이다.

「軸組—造作」の構造システムによって、座敷、次の間、縁などの複合的な空間構成や床の間、飾り棚などの座敷飾り、そして押入や各種の天井形式がつくられる。

「축조(솥췌)—작(짚뵈)」의 구조시스템에 의해 자씨끼(다다미실), 쓰기노마(부속실), 엔(뿃마루) 등의 복합적 공간구성과 도꼬노마(장식공간), 카자리다나(장식대) 등의 자씨끼 장식, 그리고 벽장과 각종 천정양식을 만들 수 있다.

座敷飾りの使い方や襖・障子などの自由な開放によって、内部から外部への連続的な開放空間が生まれる。

자씨끼의 사용법과 미닫이창이나 문의 자유로운 개방에 의해 내부에서 외부로의 연속적인 개방 공간이 만들어진다.

この連続した開放空間に、座布団や座卓を使用すると、さらに多様な用途に対応することができる。

이런 연속적 개방공간에 방석과 좌탁을 두면 더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つまり和室とは、使う人間に比重がかかるわけで、箸や風呂敷などと共通する日本文化の特質になっている。

즉, 화실은 사용하는 사람에 비중을 두는 젓가락이나 보재기 같은 일본문화의 특징중 하나이다.

「横浜 三溪園」

「요꼬하마 산케이엔」

現代では庭園といえるほどの広い庭を住宅は稀になった。

현대에는 넓은 정원을 가진 주택이 드물어 졌다.

しかし日本の住宅には、現代でも庭園と室内の関係を通して形成された空間の特質が色濃く投影されている。

그러나, 현대에도 일본 주택에는 정원과 실내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공간의 특징이 깊이 투영되어 있다.

一つの例として、超近代的なオフィスビルの中にあたかも自然のせせらぎのような川が流れている現代都市の新しい風景を見ることができる。

한 예로서, 초근대적인 오피스빌딩 속에 마치 자연의 얇은 개울처럼 물이 흐르고 있는 신품경을 볼 수 있다.

「東京 胡蝶」 大江 宏

「도쿄 코쵸우」 오오에 히로시

ビルの地下に実際の樹木を植え、露地を構えた茶室や料亭—

ここに、自然の風景や庭園を大地の連続性から切り離して内部化しようとする、寝殿造り以来の日本住宅の根強い伝統を見ることができる。

건물의 지하에 실제 수목과 정원을 만든 다실과 음식점 -

여기에서 자연풍경과 정원을 대지의 연속성으로부터 끊어 내부화시키려는 신텐쓰꾸리 이후 일본 주택의 뿌리깊은 전통을 볼 수 있다.

内部でも外部でもない、曖昧な中間領域と複雑な建具形式、これこそ日本住宅の持ちうる懐の深いデザインとすることができる。

내부, 외부도 아닌 애매한 중간 영역과 복잡한 창호양식, 이것이 일본주택이 가지는 깊은 의미의 디자인이다.

日本住宅の豊かな境界デザインは、さりげなさの中に奥深い秩序を持っていることである。

일본주택의 풍부한 경계디자인은 평범한 듯 하지만 깊은 질서를 가지고 있다.

開口部や身近な景色に目を留めず、意識は自然に広大な外部の世界に広がっていくようにつくられた借景の技法。

개구부나 가까운 경치에 눈을 멈추지 않고 광활한 자연의 세계고 의식이 넓혀지는 것처럼 만드는 차경(경치를 빌려움)의 기법

これは内部空間の心理的拡大だといえる。

이것은 내부 공간의 심리적 확장이라 할 수 있다.

近接した庭園の景色を、半間ごとの開口部と広縁を通して全体像を心の中で想像しながら見る。

가까운 정원의 경치를 반 칸 간격의 개구부와 넓은 텃마루를 통하여 전체 모습을 상상하며 바라본다.

これは限られたスペースをカバーするためのある種のフィルター効果とすることができる。

이것은 한정된 스페이스를 커버하기 위한 일종의 필터효과라 할 수 있다.

障子の巧みな使用によって、近接した狭い外部を親和化した舟入の技法。

쇼지(반투명 창문)의 정교한 사용에 의해 근접한 좁은 외부를 친화화하는 도입 기법

この技法は坪庭や雪見障子として受け継がれている。

이 기법은 중정이나 유키미쇼지(눈경치를 보기 위한 창문)에 의해 계승된다.

日本の風土・文化の中で伝統的に形成され、日本人の生活思想の根底と深く結びあってきた様々な特質をはっきりと把握し、現代の都市的条件や生産技術の中で、これからの住宅文化を築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일본의 풍토·문화 중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일본 생활사상의 뿌리와 깊이 결부되어온 다양한 특징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현대의 도시적 조건과 생산기술 안에서 앞으로의 주택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 地域文化財の考え方

2. 지역문화재 사고법

地域文化財の考え方

지역문화재 사고법

西川 幸治

니시가와 쿠후지

歴史的景観や歴史的環境などの保存。

역사적 경관과 역사적 환경등의 보존

町や村には指定文化財ばかりでなく、地域住民にとって重要な意味を持つ地域文化財と呼ばれるものがあり、それぞれの地域でその地域文化財を積極的に生かす工夫が試みられている。

마치(읍)와 무라(면)에서는 지정문화재 외에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지역문화재가 있어

교유의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また、保存度という考え方も起こってきている。

또한, 보존도라는 사고법도 생겨났다.

大津 膳所(ぜぜ)

오오즈 제제

保存度とは、歴史的環境がどの程度保存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尺度であり、歴史的環境の悪化を防ぎ、その回復を目指すものである。

보존도라는 것은 역사적 환경이 보존된 정도에 대한 척도로서 역사적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그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京都 祇園新橋

교토 기온신바시

保存修景計画

보존수정계획

保存度という考え方は京都の祇園新橋や、産寧坂の街並みについて、その保存修景計画に当たって考えたものである。

보존도란 교토의 「기온신바시」나 「산네이자카」의 가로모양에 대한 보존수정계획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九州 臼杵地区

큐슈 우수키지구

たとえば、臼杵地区では保存度だけでなく、近代的な建物をも含めて、その建物が臼杵の歴史的景観を高めるために如何に貢献しているかを評価する尺度として、景観に対しての貢献度という考え方を導入している。

예를 들면, 우수키지구 예서는 보존도뿐 아니라 근대적 건물도 포함하여 고장의 역사적 경관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경관에 대한 공헌도라는 사고법을 도입하고 있다.

新しい建物でも、街並みに融合したデザインとすることで貢献度が高まっていく。

새 건물일지라도 거리에 융합된 디자인이면 공헌도가 높아진다.

しかし、地域によってそれぞれ異なる文化的価値を画的に評価できるものではなく、地域に応じた評価方法を作り出すことこそ重要である。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른 문화적 가치를 확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에 맞는 평가방법을 만들어내는것이 중요한것이다.

街並みや集落の景観、祭りなどもその地域の人々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ものであるばかりでなく、他の地域から訪れる人々にも感銘を**与え**、憧れを抱かせるようなものとして保存し**続**けていきたいものだ。

거리와 촌락의 경관, 축제등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것일 뿐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에게도 감명을 주고 동경심을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京都 伏見

교토 「후지미」

ここでは一つの企業が自分の遺産としてだけでなく、地域の景観保存に他に先んじて**貢**献をした例を見ることができる。

여기 한 기업(전통주생산업체)이 자산으로서 지역 경관보존에 공헌한 예를 볼 수 있다.

最初は個人のレベルで建物を保存することからはじめているが、それを一**区**域の輪に**広**げ、さらに**地**区レベルへ、さらに地方都市レベルへと**拡**大していくという形態をとっていることが注目される。

처음에는 개인의 수준에서 건물을 보존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구역, 지구, 지방도시의 수준으로 확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西川 幸治

니사가와 「코우지」

文化財に「指定文化財」と「地域文化財」があるように、文化財の保存に**対**しても**対**応する2つの考え方があると思う。

문화재에는 「지정문화재」와 「지역문화재」가 있는 것처럼 문화재의 보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두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한다.

たとえば、指定文化財である法隆寺のような**歴**史的な建造物を保存する場合には、解体調査等の調査を**経**て、創建**当**時の形に**戻**すという方法が採られる。

예를 들면, 지정문화재인 「호류사」 같이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는 경우 해체조사와 같은 조사를 거쳐 창건 당시의 모양으로 복원하는 방법이 채택된다.

静態保存

정태보존

私はそういう方法を「**静**態保存」と呼んでいる。後に改造された部分はずして創建**当**時の形に**戻**して保存するという考え方である。

나는 그런 방법을 「정태보존」이라 부르고 있다. 이후에 개조된 부분을 떼어내어 창건 당시의 모양으로 돌려 보존하는 방법이다.

動態保存

동태보존

もう一方で、街並みだとか、町家であるとか、またこの**酒**蔵のようなものは指定文化財に含まれるが、これらは建った**当**時の形も重要であるが、後に時代の**変**化に**併**せて改造を積み重ねて**来**たその過程を重視する考え方がある。

한편, 거리, 농가, 또는 술도가 같은 것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세워진 당시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후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조를 거쳐 온 과정이 중시되는 사고법도 있다.

伝統的なものの中で、あまりよくないものを固定してしまいよいものを引き継ぎ、これからの時代の中で積極的に生かしていく保存の仕方を「動態保存」と呼んでいる。

전통적인 것 중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고정시켜 버리고 좋은 것은 계승하여 적극적으로 살려가는 보존의 방법을 「동태보존」이라고 부른다.

京都 嵯峨野・鳥居本

奨脅 疣矩勸・抵肖云

京都では古都保存法をはじめとして、街並みや景観に対して様々な指定があり、嵯峨野・鳥居本地区は古都保存法の指定地区であるほか、種類の指定を受ける地区になっている。

교토에서는 고도보존법을 시작하여 가로와 경관에 대한 다양한 지정이 있는데 사가노·도리이모 또는 고도보존법 지정지구등 갖가지 지정을 받는 지구로 되어 있다.

街並みの保存、新しいまちづくりにあたっては静態保存の考え方だけを保存と考えない。

가로의 보존, 새로운 거리만들기에 있어서 정태보존 사고법만을 보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優れた伝統をこれからのまちづくりに積極的に活用していく、動態保存の考え方を取り入れていく必要がある。

앞으로 우수한 전통을 도시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태보존 사고법을 적용해 갈 필요가 있다.

京都 三条通

교토 「산조도리」

ここは鳥居本と異なり、伝統的保存ではなく、保存修景の整備を続けている地域である。

여기는 도리이모도와 달리 전통적 보존이 아닌 보존수경정비를 시행해 오는 지역이다.

京都文化博物館 旧日本銀行京都支店

교토문화박물관 「구일본은행교토지점」

辰野金吾設計の明治建築を静態保存した例である。

다즈노킨고씨 설계의 메이지건축을 정태보존한 예가 있다.

京都 中京（なかぎょう）郵便局

교토 「나카교우 우편국」

一方、文化財保存に関し、謙虚な姿勢を崩さずに、しかも積極的に動態保存の考え方を導入してケースがいくつかある。

한편, 문화재 보존에 관해 겸허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태보존 사고법을 도입한 예가 몇가지 있다.

これはかつてルネッサンス様式で建築された建物だが、外壁を保存しながら、内部構成を一変させることで開発と保存の問題に応えている。

이것은 일찌기 르네상스식으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외벽을 보존하며 내부구조를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周辺環境との調和に対する考慮がなされている動態保存の代表例である。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동태보존의 대표적 예이다.

京都 日本生命京都支店

교토 「일본생명교토지점」

まちづくりとの調和という点で、過去のをそのまま固定して保存する必要はなく、過去のをどう活用すればよりすばらしい町になるかという視点に立つことが重要である。

거리만들기의 조화라는 점에서 과거의 것을 그대로 고정시켜 보존할 필요보다는 과거의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보다 좋은 도시가 될까라는 시점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新たな都市づくりのために過去を問い直す。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과거를 고려해가며 고친다.

地域計画はその都市の歴史や文化を把握し個性を持った町や環境づくりに対して、きちんとした情報提供をしよう場となる。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과거를 고려해가며 고친다. 지역계획은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파악해 개성있는 마을과 환경을 만드는데 적절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장이 된다.

東京駅

도쿄역

現在開発の焦点になっている東京—

ここでは東京駅保存の署名運動や東京駅の写生会なども行われている。

현재, 개발의 초점이 되어 있는 도쿄—

여기서는 도쿄역 보존 서명운동이나 도쿄역 사생모임등이 행해지고 있다.

こういった我が町の環境保存を願う市民のエネルギーを開発のメッカといわれる東京にも見ることができる。

이렇게 고장의 환경보존을 바라는 시민의 힘을 개발의 메카인 도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伝統的な日本3大祭りの一つである京都の祇園祭—

先祖から受け継がれ、市民が大切に育んできた祭り。

전통적인 일본 3 대축제의 하나인 교토의 기온축제—

선조부터 이어 받아, 시민이 소중하게 이어온 축제.

市民主体の、文化の伝承にたいするすざましいばかりのエネルギー—

문화 전승에 대한 시민주체의 강한 힘

地域文化財の保存はこうしたエネルギーに支えられている。

지역문화재의 보존은 이러한 힘에 의해 지탱되어지고 있다.

今私たちはこのエネルギーとそれぞれの地域に残された文化的遺産について、改めて考えてみる時期に来ている。

지금 우리들은 이 힘과 각 지역에 남겨진 문화적 유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기에 와 있다.

3. 京町家

3. 쿠후마치야

京町家

쿠후마치야

上田 篤 (UEDA Atsushi)

우에다 「아쯔시」

町家は、もともと農村社会とは非常に異なる部分を持っている。

마찌야는 본래 농촌사회와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

町家というのはもともとが商家であり、空間構成的に見ると、道路から奥に向かって4つのブロックに分けることが出来る。

마찌야란 본래 상가인데, 공간구성은 도로부터 안쪽으로 4 개의 블록으로 나눌 수 있다.

すなわち、短冊状の敷地の短辺を街路に接し、奥に向かって長く、奥深く建てられた独立住宅形式のことを言う。

즉, 좁고 긴 시각형 부지의 짧은 면을 도로에 접하며, 안쪽으로 깊숙히 세워진 독립주택형식을 말한다.

一般に内部の空間構成は、道路側から順番に、

일반적으로 내부의 공간구성은 도로측부터,

店、中の間、座敷、前栽(senzai)、小座敷、それに蔵(kura)

미세, 나카노마, 자시끼, 센자이, 코자시끼, 그리고 쿠라의 순서로

などというように配置され、奥に行くに従って、プライベート性を重視したつくりになっている。

배치되어, 안쪽으로 감에 따라 프라이비시를 중요시하고 있다.

第一の空間である「店」、つまりここは商売をする空間である。

첫번째 공간인 「미세」, 이곳은 장사하는 공간이다.

次が「中の間(naka-no-ma)」で、食堂や台所、居間、寝室などの生活をする空間。

그 다음은 「나카노마」로 식당과 부엌, 거실, 침실등의 생활을 하는 공간.

神棚(kamidana)はここにある。

신단은 여기에 있다.

このさらに奥は「座敷」。

더 안쪽은 「자시끼」.

ここに仏壇がおかれていて、冠婚葬祭のための祭祀の空間になっている。

여기는 불단이 있어 관혼상재를 위한 제사공간으로 되어 있다.

座敷の奥には、前栽という庭があるが、座敷は常に前栽と一体になっていてその間に縁側がついている。

자시끼의 안쪽에는 센자이라는 정원이 있는데, 항상 사이에 뒷마루를 두고 연결되어 있다.

通りから一番奥が第四の空間になっているが、ここは離れとか数寄屋(sukiya)とか茶室などという、完全に個人の遊びの場としての小座敷である。

가장 안쪽은 제 4 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채나 다실등, 완전한 개인 놀이장소로서의 코자시끼이다.

通り庭

도리니와

通り庭は、細長い通路のような庭で、居住空間どうしの往来と接続を可能にしている。

도리니와는 좁고 긴 통로같은 정원으로, 저주공간끼리의 왕래와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この通り庭は、当時の生活文化やコミュニティ形成にも寄与している重要な意味を持つものである。

이런 도리니와는 당시의 생활문화와 커뮤니티형성에 기여했다는 중대한의미를 가진다.

京都 西陣 (NISHIJIN)

교토 니사진

今も随所に当時の面影を残している京都、西陣の街並みー

지금도 곳곳에 당시의 모양이 남아 있는 교토, 니시진의 가로모양ー

こういう町家の形式は、いわば伝統的な日本の生活様式に従ったものだということができ、この形式が今改めて見直されてきているのである。

이런 마찌야의 형식은 일본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현재 다시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祭祀の空間ー

제사의 공간

京都の町家は、その住人たちが冠婚葬祭を行うことで何代も同じところに住み、常民化していった。

교토의 마찌야에는 그 주인들이 관혼상제를 행하며 몇 세대씩 같은 곳에서 상주해 오고 있다.

それがコミュニティをつくり、京都の町の風景をもつくれた。

그것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교토의 거리 풍경을 만들어 왔다.

町家の場合、内部、すなわち中の中に神棚を祭ってコミュニティの一員となり、さらに座敷という空間に仏壇をおき、祖先を祀ることで、「家」として認められ、存続していくための物質的、精神的保証をコミュニティから与えられたということになる。

마찌야의 경우, 내부, 즉 나카노마의 신단에 제사지내며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자시끼에 불단을 두고 선조를 기려 「집」으로서 인정되는 등. 존속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보증이 커뮤니티로부터 주어지게 된다.

つまり、地域社会での家の独立という考え方である。

즉, 지역사회에서의 집의 독립이란 사고방법이다.

江戸中期以降の町家に見られる蔵屋敷をはじめとする数寄の空間ー

에도중기 이후의 마찌야에서 볼 수 있는 다실 공간ー

こういったところに客を呼んで茶道具類や書画骨董を見せ合い、互いに楽しんだ。

여기서는 손님을 불러 차도구류와 서화를 보여주고 서로 즐겼다.

これは、小さいながらもギャラリーであり、ここで歌舞音曲もやるならば、それはホールにもなった。

이것은 작은 갤러리면서 가무와 곡조를 할 때는 홀로도 사용되었다.

上田研究室・調査資料

우에다 연구실・조사자료

この赤く塗った部分はほぼ完全に保存されている状態を示している。

붉게 칠해진 이 부분은 거의 완전히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빌의建設によって美しい瓦屋根が滅びていく中であって、かつての町家の機能と形態をとどめ
たまま、街並みに融合している姿を西陣地区に見ることができる。

빌딩의 결설에 의해 우아한 기와지붕이 사라지는 중에 있지만, 원래의 마차야의 기능과 형태를
그대로 가로모양에 융합시킨 모양을 니시진지구에서 볼 수 있다.

この黄色、またはオレンジ色の部分は一部機能的に改修しながら、形態的には保存されているも
のである。

노란색과 오렌지색의 이 부분은 기능적으로는 일부 개선되고, 형태적으로는 보존되어 있는 경우
이다.

この町家の場合、従来の店の間を改良して、ギャラリーとして活用している。

이 마차야의 경우는 종래의 상점을 개량하여,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다.

動態保存の典型例といえる。

동태보존의 전형적 예라고 말할 수 있다.

こちらは、店の間を書店に改修した町家で、これもやはり動態保存の例である。

이 쪽은 상점공간을 서점으로 개조한 마차야로 역시 동태보존의 예이다.

「宮原邸」高松 伸 (TAKAMATSU Shin) (1982 年)

「마야하라씨 주택」 다카마쯔 신 (1982 年)

これに対してデザイン的に再生している例として、町家の構成原理を生かしながら現代建築に応
用している例もある。

이를 디자인적으로 재생하고 있는 예로서는 마차야의 구성원리를 살려 현대건축에 응용한 사례
가 있다.

短冊形の敷地の中に建てられた職・住兼用の建物。

좁고 긴 사각형모양의 부지에 세워진 직·주겸용의 건물

内部空間は多様性を持たせるよう、スペースを最大限に生かした設計になっている。

내부는 다양성을 가지도록 공간을 최대한 살린 설계로 되어있다.

挿入図面) 宮原邸 2 階平面図

宮原邸 2 階平面図

미야하라씨 주택 2 층평면

外部階段

외부계단

玄関

현관

事務室

사무실

湯沸室

탕비실

ベランダ

베란다

「フロッグ ハウス」吉村 篤一 (YOSHIMURA Tokuichi) (1978 年)

「Frog House」요시무라 토쿠이치 (1978 年)

この住宅では、正面だけを重視する手法を取らず、円の一部を取り入れた片流れ屋根でスカイラインを特徴づけている。

이 주택에서는 정면만을 중시한 수법과 함께 원의 일부로 된 경사지붕의 스카이라인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街並みに融合させ、全体を上方に展開させている。

거리모양에 융합하여, 전체가 윗방향으로 전개되어 있다.

挿入図面) フロッグハウス

FROG HOUSE

西側立面

서측입면

南側立面

남측입면

一階平面

일층평면

「京都精華大学」 上田 篤 (1988 年)

「교토 세이카대학」 우에다 아쯔시 (1988 年)

町家の形状や空間形式を、大学の校舎に応用した例もある。

마찌야의 형상과 공간형식을 대학의 교사에 응용한 예도 있다

京都精華大学がそれである。

교토 세이카대학이 그것이다.

日本の文化を育んできた町家や街並みが次々に新しい建築に取って代わっていく時において、今後町家はどんな展開を見せていくのだろうか。

일본 문화를 길러온 마찌야화 거리모양이 계속하여 새로운 건축에 의해 바뀌어져 가는 시기에 있어, 이후의 마찌야는 어떤 전개를 보여줄 것인가.

上田 篤

우에다 아쯔시

京都の歴史は1200年と言われているが、この町家も京都と同じくらいの寿命を持っている。

교토의 역사는 1200 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찌야도 교토와 같은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

日本文化というもの生活文化であるということだ。

그것은 일본문화가 생활문화라는 데 있다.

つまり、街の中の路地、町家の玄関の格子戸、暖炉、そして部屋の中の仏壇、家具、什器(ju-ki)などあらゆるものがデザインされ、それぞれの町家は舞台になっている。

요컨대, 거리의 노지, 현관의 격자문, 노랭, 그리고 방안의 불단, 가구, 퇴박등이 디자인되어진, 각각의 마찌야는 하나의 무대가 되어 있다.

日本人は茶道、華道、俳句などを、生活の中にとけ込ませて楽しむ。

일본인은 다도, 꽃꽂이, 시등을 생활 속에서 즐긴다.

町家の奥の小座敷ではそうした会合が昔から開かれている。

마찌야 안채의 코자시끼에서는 그런 모임이 옛부터 열려져 왔다.

京都に来た外国人の建築家は町家を見て驚愕する。

교토에 온 외국 건축가는 마찌야를 보고 무척 놀란다.

彼らはその中に入り、まるでミュージアムのようなという。

그는 그 안이 마치 박물관같다고 말한다.

時には町家の残された街並みを見て、街全体がミュージアムだという。

때때로 마찌야가 보존된 거리모양을 보면 기리전체가 생활문화의 박물관같은데,
生活文化のミュージアム、これは日本文化の一大特色である。

이것이 일본문화의 큰 특색이다.

そういうわけで町家を残していきたい。

그런 이유로 마찌야를 보존해 가고 싶다.

町家をどのように残していくのか、それは「鰻の寝床」といわれる短冊形の敷地を守ることが大事である。

마찌야를 어떤식으로 보존해 갈까, 「뱀장어의 침상」이라고 하는 좁고 긴 모양의 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そうすることにより、生活文化の舞台が残るだろう。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 생활문화의 무대가 남을 것인가

例えばこのキャンパスもそうだが、町家風に間口が狭く、奥行きが長い建物になっている。

예를 들어, 이 캠퍼스도 마찌야풍으로 좁은 입구와 안쪽으로 긴 건물로 되어 있다.

8つの町家風の建物が、実は中で全部つながっている。

8 개의 마찌야풍의 건물이, 실제로 안에서는 전부 연결되어 있다.

僕は、町家の敷地を守って、中身をつなげて良いと考える。

나는 마찌야의 부지도 지키고, 내부공간을 연결시켜도 좋다고 생각한다.

(挿入図面)

断面線

단면선

断面

단면

それがヘンテコな、豆腐を切ったような普通のビル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は、生活文化の舞台としての町家の意味はなくなっていく。

만일 두부를 자른 것 같은 보통의 건물이 되어 버린다면, 생활문화의 무대로서의 마찌야의 의미는 없어지게 된다.

これからの町家が残るべき方向として、このような建物を私はデザインした。

앞으로의 마찌야를 보존해 가는 방향으로서 나는 이 같은 건물을 디자인했다.

みなさんもひとつ考えてみて欲しい。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4. 現代家相学

4. 현대가상학

現代家相学

현대가상학

清家 清 (Seike Kiyoshi)

세이케 키요시 (Seike Kiyoshi)

災難の降りかからない快適な住まいをつくるために、かつて「家相 (physiognomy)」という家づくりの指導書があった。

재난 없는 쾌적한 주거를 위해, 가상 (physiognomy) 이란 주택 만들기 지침서가 나와 있다.

その家相には、

가상에서는

「玄関が表門の正面にあるのは凶」

「현관이 대문이 정면에 있으면 흉」

「家の中央に宅主の居間を設けるのは吉」

「집의 중앙에 주인이 거실이 위치하면 길」

「門口より一直線に寢室のあるは凶」

「출입구의 일직선에 침실이 있으면 흉」

「台所を南西に置くのは凶」

「부엌을 남측에 두면 흉」

「北向きの雪隠 (トイレ) は凶」

「북향의 화장실은 흉」

「家は南向きが吉」

「남향집은 길」

このような言葉はどこに根拠があるのかわからないが、威厳と説得力があり、人々を納得させてきた。

이러한 말들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위엄과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납득시켜 왔다.

信じるか信じないかは別として、現在の私たちの住宅や家庭生活にも通じる重要な示唆を含むものがある。

이를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는 현재 우리 주택과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資料提供：清家清

자료제공：세이케 키요시

家相は古代中国に生まれた。

가상은 고대 중국에서 발생하였다.

日本には奈良時代に伝来し、平城京や平安京の土地の選び方に、家相の思想が活かされたという。日本에는 나라시대에 전하여져서 헤이죠쿄 (平城京) 와 헤이안쿄 (平安京) 의 토지를 선택하는데 이 사상이 활용되었다.

「家相とは、ファミリーの生活全体のパフォーマンスを含めた相を言うのです。人相や手相と同じように、家相にもその人自身の生活のパフォーマンスが現れる。」

「가상이란, 가족 생활의 전 행위를 함축한 모습을 말한다. 인상이나 수상과 마찬가지로 가상에 서도 각 사람의 생활 행위가 나타난다.」

清家先生は、自宅を設計される際に、家相の考え方に反することを試みた。

세이케선생은 자택을 설계할 때, 가상의 사상에 반대되는 일을 시도해 보았다.

「階段を家の中央につくるのは凶」

「계단을 집의 중앙에 만들면 흉」

家の真ん中を大切にするという考え方が家相の根本にあるため、中央に階段を置くことを戒めたのである。

집의 정중앙을 중요시하는 사고법이 가상의 근본에 있으므로 중앙에 계단을 두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しかし、東京のような過密都市においては、敷地や間取り、構造、設備など、家相に従って家をつくることは、物理的に不可能である。特にマンションのような同じ間取りを持つ家では、家相よりも、どのように住むかが家族にとってのテーマになってくる。

그러나 동경같은 과밀도시에서는 부지나 방배치, 구조, 설비등 가상에 의해 집을 만드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맨손같이 방배치가 같은 주택에서는 가상보다도 어떤 식으로 사는 가족인가가 테마가 되어왔다.

この家では少しでも広く使いたいという希望から、間仕切りを自由開閉式の扉にして、様々な状況に対応できるように変更した。

이 집은 작지만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방배치를 자유개폐식의 문짝에 의해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このように家は、住む人の住まい方によって、それぞれの顔がつくられ、価値が生まれてくるのである。

이렇게 집은 거주인의 주거방식에 의해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다.

「鬼門に便所があるからダメというのではなくて、これは日当たりがよく風通しがいいから良い、とするのが科学であり、建築計画学です。」

북쪽에 변소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양지바른 곳이 통풍이 잘 되므로 좋다고 하는 과학적인 건축계획학이다.

吉田兼好の『徒然草』に「家のつくり方は夏を基準とするべきである。冬はどんなところにも住める」という文章がある。つまり、日本の家屋は夏涼しいことを主眼としてつくられていたようだ。요시다 켄코의 「쓰레쓰레쿠사」에서 집만들기는 여름만을 기준으로 한다. 「겨울은 어떤 곳에서도 살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 일본의 가옥은 여름에 시원하도록 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어온 것 같다.

そのため、湿度の高い日本では、風通しをよくするために開口部を広くとるといふ工夫をした。

이를 위해, 습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통풍을 좋게 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넓히는 고안을 하였다.

これは、世界の住まいと比較しても類を見ない。

이것은, 세계적 거주지와 비교하여도 유례없다.

また、戸や障子、ふすまなどを開放すれば、すべての部屋に風が行き渡り、住み心地のよい環境を思いのままにつくり出すことができる。しかし、開口部を広くすると、強い日差しが差し込み、時には雨も吹き込むので、軒や庇が必要となる。

또한 문과 쇼지, 후수마등을 개방하면 모든 방에 바람이 잘 통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맘껏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개구부를 넓이면, 강한 햇살이 들어오고, 때로는 비도 들이치므로 처마가 필요하다.

家相にも「南に軒や庇があるのは吉」とある。

가상에서도「남쪽에 처마를 두는 것은 길」이라고 한다.

つまり、軒や庇は夏の強い日差しを遮り、さらに窓や出入り口から雨が直接吹き込むのを防ぐ役目がある。

결국, 처마는 여름의 강한 햇살을 막아주고 창과 출입구에 비가 떨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8月下旬・昼12時-強い日差しが軒で遮られているため、縁側の端に差し込んでいるだけである。

8월 하순, 낮 12시 - 강한 햇살은 처마로 차단되고 뒷마루의 끝에만 들이비출 뿐이다.

午後4時-日が西の空にだいふ傾き、縁側に部分的に差し込んでいるだけである。

오후 4시 -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때는 뒷마루에 부분적으로 들이비추고 있을 뿐이다.

夏至の日の正午、太陽の仰角はおよそ78度。軒や庇があるため、太陽の日差しを遮り直接部屋に入ら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

하짓날의 정오, 태양각은 78도.

처마가 있기에, 햇빛을 차단해 직접 방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다.

一方冬至の日の正午、太陽の仰角はおよそ30度。日差しが部屋の中にまで差し込むようになっている。

한편, 동짓날의 정오, 태양각은 30도. 햇빛은 방의 내부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다.

現代的な住まいを見ると、軒や庇がないため、日が直接部屋に入ってしまう。そのため戸や窓を閉めきり、クーラーなどで室内を快適な状態にせざるを得ない。

현대적인 주거를 보면 처마가 없기에 햇빛이 직접 방에 들어와 버린다.

그러므로 창을 닫고 에어컨등으로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수 밖에 없다.

また、家相に「床が高い家は吉」とある。

또한, 가상에서는「마루가 높은 집이 길」이라고 한다.

木造の家は床下の通風をよくして家の健康を保つ。

목조집은 마루밑의 통풍을 좋게 하여 집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通風が悪いと、湿気のために腐ったり、シロアリがついて耐久性を損なうことになる。

통풍이 나쁘면 습기로 인해 썩거나 벌레가 먹어 내구성을 손상시키게 된다.

さらに湿気が上って畳の傷みを早め、住む人の健康のためにも良くない。

게다가 습기가 많으면 다다미를 쉽게 상하게 하고 거주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このように伝統的な住まいには、生活の経験から生まれた家づくりの知恵がある。まさに、永遠に生き続ける家相の教えである。

이같이 전통적 주거에서는 생활경험으로부터 나온 집만들기의 지혜가 있다.

마치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듯한 가상의 가르침이다.

「私は、家というのが家族の相だと思うのです。だから家をつくる時に一番大事なのは、家族がそこでどのような生活をするかということ、それが大変重要なことだと思う」

「저는, 집이란 가족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거기서 어떠한 생활을 할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東京世田谷の住宅密集地に住むこの家では、現代的な家づくりの工夫が見られる。

도쿄 '세타가야' 란 주거밀집지의 이 집에서는 현대적인 집만들기의 생각이 보여진다.

玄関に続く板の間を広く取り、外に面する側は全面ガラス張りにしている。

현관에서 이어지는 마루를 넓게 하고 밖을 향하는 쪽은 전면유리창으로 했다.

伝統的な住まいの特徴である、広い開口部と、軒や庇を現代風にアレンジして、明るく住み心地のよい家づくりがされている。また、開放的な空間を演出することで、家族同士の、そして訪れる人との心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場にもなっている。

전통적 주거의 특징인 넓은 개구부와 처마를 현대적으로 처리하여 보다 밝고 살기좋은 주거가 되었다. 또, 개방공간을 연출함으로써 가족끼리 혹은 방문자와 마음의 대화 장소로 되도 있다.

このように都市の限られたスペースや条件の下で、有効な間取りを考えるには、柔軟な発想と、家族の最適な住まい方が必要になる。

이같이 도시의 한정된 공간과 조건내에서 유용한 방배치를 고안해 내는 것에는 유연한 발상과 가족에게 적절한 생활 방법이 요구된다.

現代の家相に曰く、「家は、住む人の心が宿る」。

현대의 가상에서 말하기를, 「집은 사는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다」.

5. 木から教えられてつくる

5. 나무로부터 배워서 만든다

【木から教えられてつくる】

【나무로부터 배워서 만든다】

苗から木を育てる。

모종으로부터 나무를 기른다.

三十年

30년

六十年

60년

六十年から百年たって、やっと建築に使える素材としての木が誕生する。

60년부터 백년이 경과해서 겨우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서의 나무가 탄생한다.

木を育てる。この長いサイクルから考えても、私達は木を使う時、大切に取り扱う心を忘れてはならない。

나무를 기른다. 이 긴 사이클로부터 생각해도 우리들은 나무를 사용할 때 소중히 취급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木から教えられてつくる】

【나무로부터 배워서 만든다】

室町時代末期のものと考えられている。現存する数少ない古い民家の一つ、千年家。

무로마치시대 말기의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현존하는 얼마안되는 낡은 민가중의 하나, 천년집.

【箱木千年家】

【상목 천년집】

日本家屋の特徴は、柱と梁でできていることである。

일본 가옥의 특징은 기둥과 대들보로 되어 있는 것이다.

欧米の家屋が、壁で支えられているのに対して、日本の家は柱と梁が家を支えているのである。

서양의 가옥이 벽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집은 기둥과 대들보가 집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吹き抜けの天井を支える柱や染・桁には、釘は使われていない。

터여진 천정을 지탱하는 기둥이나 보·도리에는 못은 사용되지 않았다.

玉石の上に柱や床づかが乗り、大引きの上に根太が渡され、その上に床板が乗せられている。

주춧돌위에 기둥이나 마루자리가 놓여지고 마루지지 나무위에 마루틀이 놓이고 그 위에 마루청을 올릴 수 있었다.

六百年近くさかのぼる当時、板は貴重品だった。

6 백년 가깝게 거슬러 올라간 당시에 있어 나무판은 귀중품이었다.

切りだした丸太を割り、手斧（ちょうな）で削る方法しかなかった。

잘라낸 통나무를 나누어 큰 자귀로 깎는 방법 밖에 없었다.

柱は一間ごとに配置され、面が大きくとられている。

기둥은 한칸마다 배치되어 공간을 크게 빼앗고 있다.

村の有力農家の家でありながら、室数の少ないのが時代の古さを感じさせるが、この古い民家からも当時の人達が木とふれ合い、木の性を考え、その用途に合わせて素材としての木を使い分け

ていた姿を見ることができる。

마을의 유력농가의 집이면서 방수가 적은 것이 시대가 오래되었음을 느끼게 하지만, 이 낡은 민가로부터도 당시의 사람들이 나무와 서로 접하면서 나무의 성질을 생각하고 그 용도에 맞추어서 소재로서의 나무를 구사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建築の世界で、日本の民家は高い評価を受けているが、その中でも日本の民家が到達した頂点ともいべき一つの町屋の場合で、木とのふれ合いの例を見てみよう。

건축의 세계에서, 일본의 민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의 민가가 도달한 정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한 마차야의 경우에서 나무와의 만남의 예를 살펴보자.

【飛騨高山・吉島家】

【히다타카야마 요시지마가】

この家が建てられたのは明治時代だが、実質は江戸の町屋の技術が集大成されている。江戸時代には、建て方にも使う木にも厳しい禁令があり、例え豪商でも、それは自由にはならなかった。이 집이 지어진 것은 메이지 시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도의 마차야의 기술이 집대성 되어있다. 에도시대에는 건축방법에도, 사용하는 나무에도 무서운 금지령이 있어 비록 재력가라고 해도 자유롭게 집을 지을 수 없었다.

しかし明治になって禁令が解かれた後、思うさま木を使い、意匠をこらして建てられたのがこの家である。

그러나 메이지기가 되어 금지령이 풀린 후, 마음껏 나무를 사용해서 장식을 풍부히 하여 지어졌던 것이 이 집이다.

土間から店になり店から建具で仕切られた部屋がつづく。

도마(일본민가 입구부분의 흙바닥의 다용도 공간)로부터 가게가 되어 가게로부터 창호로 나눈어진 방이 계속된다.

奥には数寄屋風の座敷がある。

안쪽에는 다실풍의 타다미방이 있다.

飛騨の見事な木を使って三層に組み上げられた小屋組み。

히다의 훌륭한 나무를 사용해서 3층으로 짜올려진 지붕틀.

この木の色は春慶塗りである。素木を伝統とする日本の家では珍しいことだが、春慶塗りの産地である高山では、いろりのある土間の木に、漆の刷毛を洗った油を塗ることがおこなわれて来た。이 나무의 색은 춘경칠이다. 나무에 칠을 하지않는 전통일본의 집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춘경칠의 산지인 타카야마에서는, 방한용 불 피우는 장치가 있는 도마의 목재에 옷나무의 솔을 씻은 기름을 바르는 것이 행해져 왔다.

古い住宅の部屋の仕切りは建具だが、建具をはずせば一つの大きな広間になる。

낡은 주택의 방의 구분은 창호문이지만, 창호문을 떼면 하나의 큰 객실이 된다.

木と共に生き、木の心に触れ、素材としての木を適材適所に使い分けることを知っていた飛騨の匠によってつくられたこの家には、構造と様式の統一、木に対する伝統的な愛着などが余すところなく表現され、木造建築の一つの頂点の姿を見ることができる。

나무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무의 마음을 알게되었고, 소재로서의 나무를 적재적소에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던 히다의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이 집에서는 구조와 양식의 통일, 나무에 대한 전통적인 애착등이 아낌없이 표현되어 목조 건축의 하나의 정점이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国立能楽堂】

【국립 노전용악당】

昭和五十八年八月、工期三年三ヶ月を経て完成した、耐震・耐火構造のこの能楽堂では、建物外部はアルミと鉄筋コンクリートで造られているが、人間に直接関わるものはすべて木で、構成されている。

1983년 8월, 공사기간 3년 3개월을 거쳐 완성한 내진·내화 구조의 이 노전용 악당에서는 건물 외부는 알루미늄과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지만 인간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모두 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人を大きく包み込む木の印象、それはどのように考えられ、どう展開されているのだろうか。사람들을 크게 감싸고 있는 나무의 인상, 그것은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전개되어 졌던 것일까?

ここへ入って来ると、まず木が一番印象的なんです。木は量っていうんです、プロポーションなんか見ますと、ちょっと背が広間の方がもっと背が高いですけど。

여기에 들어오면 우선 나무가 제일 인상적입니다. 보통 나무의 양으로 말합니다만, 균형으로 살펴보면, 히로마(객실) 쪽이 조금 더 키가 큼니다.

それに対して木の印象のために、割り合いたくさん、例えばモヤ、ヒサシっていう感じでいきますと、向こうが角柱かなと思うと、やはり丸柱を使われている、ある程度、ここに入ってきた時に木があるっていう……

그에 비하여 나무의 인상을 위해서 비율적으로 아주 많이, 예를 들면 모야, 히사시라고 하는 느낌으로 하면, 저 편이 각기둥일꺼라고 생각하면, 역시 통기둥을 사용하고 있는, 어느 정도 여기에 들어 왔을 때에 나무가 있다 라고 하는…

一つの予告というか、プロローグっていうか、そういう気持を……

하나의 예고라고나 할까, 프롤로그라고나 할까, 그러한 기분을……

それから、庭が大変素晴らしい。

그리고, 뜰이 몹시 훌륭하다.

こちら、正面から入って乗ると、庭が素通しにして、その手前にこの丸柱がこう立っているっていう…

이쪽, 정면에서 들어가면 뜰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바로 그 앞에 이 통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あの庭も、あまり庭らしい庭じゃなくて……

그 뜰도, 너무 뜰같은 뜰이 아니고……

武蔵野の気風をね……

무사시노의 기풍을……

こうして、木との触れ合いを何段階もの空間的なアプローチで深めつつ、やがて能舞台への屏が開かれる。

이렇게 해서 나무와의 만남을 몇 단계의 공간적인 어프로치로 깊게 하면서, 이윽고 노 무대어의 벽이 열린다.

建物の器の中に入っている能舞台ということで、何か特にご苦労されたことは?

건물이라는 그릇속에 들어가 있는 노무대라고 하는 것을 위해 무엇인가 특히 수고스러웠던 점은?

それは、ボリュームですね。これをそのまま外に建てたとしたら、ものすごく軽くて華奢で薄い感じですね。

그것은 볼륨이군요. 이것을 그대로 밖에 세웠다고 하면 대단히 가볍고 가녀리고 얇은 느낌이죠.ところが外に立っているようなものは、どんなに華奢だと思っても、ここへ建てたら非常にそぐわない、この空間には武骨なものになってしまう。

그런데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것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여기에 세우면 매우 맞지 않은, 이 공간에는 예의를 모르는 물건이 되어 버린다.

ここが建物に囲まれた、密度の高い空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여기가 건물에 둘러싸인 밀도 높은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ここが白州である場合とそうでない場合とではまた違いますからね。

여기가 하쿠슈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또 다르니까요.

その辺のプロポーションのとり方っていうのは原寸でないとね、一般図ではもうそこまでのデリケートな感覚は現わせませんからね。

그런 균형을 취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치수가 아니면 일반도면에서는 벌써 거기까지의 섬세한 감각은 나타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どうしても原寸場で、原寸でもってその辺をやらないと図面で追えるところは図面で追っていきますけどね、二十分の一、せいぜい十分の一ぐらいまでですね。

아무래도 원치수작업장에서, 원치수에서 좀더 그 근처를 하지 않으면 힘들군요. 도면에서 쫓을 수 있는 곳은 도면에서 쫓아 갑니다만, 20 분의 1, 10 분의 1 정도까지군요.

それから先は原寸でいくより仕方ありませんね。

그앞은 원치수로 가는 것이외는 방법이 없네요.

【瑞聖寺修復工事原寸場】

【서성사수복공사 원치수작업장】

この原寸場では実測に沿って修正を加えながら墨つけを行なっている。

이 원치수작업장에서는 실측에 따라 수정을 더하면서 먹줄넣기를 하고있다.

大工が軽子を打ち、棟梁が墨壺を持って、壺糸で墨をつける。

목수가 나무를 치고, 동량이 먹통을 가져와서 단지실로 먹줄을 넣는다.

壺糸で引かれた墨の上に棲準尺を置き、壺差しで棟梁が印をつけて行く。

단지실로 끼여진 먹줄 위에 서 준척을 두고, 동량이 표시를 넣어 간다.

一本のしない棒から破風の曲線が、棟梁の経験と長年培われた感覚でつくり出される。

아무것도 없던 한개의 나무봉으로부터 파도풍의 곡선이 동량의 경험과 오랜 세월속에 길러진 감각으로 만들어내어진다.

棟梁の手が、かんなに伝わる微妙な変化を感じ取り、修正を加える。

동량의 손이 대패에 전해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 수정을 더한다.

組物の墨つけ 差しがねと墨差しで線を引く。

공포에 먹줄 넣기 자와 죽필로 선을 긋는다.

原寸場では、材の性格を見極め、木の性を活かすための作業が続く。

원치수작업장에서는 목재의 성격을 판별해서 나무의 성질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 계속된다.

能樂堂には色づけはない。

노악당에는 채색은 없다.

全くの素木である

완전한 무채색나무(시라키)이다

【素木】

【시라키(무채색나무)】

これは、木を単純に素材としてのみ使って来た中国や欧米の人々にはなかなか理解し難いことだろう。

이것은 나무를 단순하게 소재로서 보고 사용해 온 중국이나 구미의 사람들에게는 꽤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素木を使うという手法は、伝統的に木を大切な素材として使って来た日本人独特の感覚によるものだからである。

시라키를 사용한다고 하는 수법은 전통적으로 나무를 중요한 소재로서 사용해 온 일본인의 독특한 감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木心

나무의 마음

木の家をつくり続けて来た人々は、その木の心を見抜き、木の性質を知ることによって、それが教えてくれる方向に従って作業を進めてゆく。

나무집을 계속 만들어 온 사람들은 그 나무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나무의 성질을 아는 것에 의해 나무들이 가르쳐 줄 방향에 따라 작업을 진행시켜 간다.

普通の大造家屋では、日本の大工は平面図を見るだけで、家を組み立てることができる。

보통 일본목조가옥에서는 일본의 목수는 평면도를 보는 것만으로 집을 조립할 수가 있다.

【仕口】

【맞춤】

仕口や継手のつくり方にはいろいろあるが、大工はそれを巧みに使い分ける。

맞춤이나 이음새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목수는 그것을 교묘하게 구분하여 사용한다.

【継手】

【이음새】

珍しくもないこうした風景の中にも、木と関わり合ってきた人々の、木との親しみ姿を見ることができる。

드문 것도 아닌 이러한 풍경안에서도 나무와 서로 관련되어 온 사람들의 나무와의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しかし、その一方で工業化をひたすら追い求めている現在、木との親近感が薄れつつあるのも事実である。

그러나, 그런 한편으로 공업화를 오로지 추구하고 있는 현재에는 나무와의 친근감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かつて私達は建築だけではなく、様々な木の道具に囲まれて生活していた。

일찌기 우리들은 건축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나무도구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었다.

木の魅カ

나무의 매력

それは、肌触りのよさ、住み心地のよさである。

그것은 촉감이 좋다는 것과 살아가는 기분이 좋다는 것이다.

木は呼吸している。この呼吸が肌触りのよさや住み心地の良さを生み出す。

나무는 호흡하고 있다. 이 호흡이 촉감을 좋게하거나 좋은 주거환경을 낳는다.

木は生きている。

나무는 살아 있다.

生きている木のぬくもりを大切に、謙虚に木の心に学びつつ、木から教えられてつくることこそが今の私達に必要な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

살아 있는 나무의 온기를 소중히하고 겸허하게 나무의 마음을 배우면서, 나무로부터 배워가면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6. 宮大工西岡常一の仕事

6. 미야다이쿠 니시오카 쓰네키즈의 일

宮大工西岡常一の仕事

미야다이쿠 니시오카 쓰네키즈의 일

西岡常一

니시오카 쓰네키즈

奈良・薬師寺の白鳳時代の伽藍（がらん :temple building）を現代に再現するーこの壮大な試みはどのような手法と手順で行われたか？

나라・약쿠시(藥師)사란 하쿠호우(白鳳) 시대의 가람(伽藍)을 재현한다. 이거대한 시도에는 어떠한 기술과 과정이 요구되었을까？

まず、地中に埋もれている遺構を発掘調査し、創建当時の伽藍配置を把握します。

우선, 지하에 묻힌 유적을 발굴조사하여, 창건 당시의 배치를 파악한다.

次は建物の高さや意匠を決めます。

그리고 건물의 높이와 디자인을 결정한다.

これは古い文書を調べるとともに、創建当時の建物である東塔を調査し、そのデータを基に決めていき、基本設計図を起こします。

즉, 고문서들과 창건당시부터 잔존하는 동탑을 조사하여, 그 데이터에 의해 기본서계도를 제작한다.

それが伽藍復興委員会で検討、承認された後、実施設計図に取りかかるーというのが、大まかな手順です。

이는 가람부흥위원회에서 검토승인되어진 후, 실시설계에 이른다.

薬師寺伽藍配置の基準が東塔の高さにあることの発見

약쿠시사 가람배치의 기준이 동탑의 높이에 있음을 발견

東の塔と西の塔の高さを半径にして円を4つ描く。その中に回廊(cloister)と金堂(こんどう: 仏殿の意)が入るように設計されてあります。そのようなことを調べ、そしてそれに合わせて設計をしていきます。

동탑과 서탑의 높이를 반경으로 원을 4개 그린다. 그 안에 회랑과 금당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조사들을 기본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西岡棟梁の基本設計ノート

니시오카의 기본 설계노트

斗木共(柱上にあり、軒や内部の天井などを支える構造体)

토쿄우(기둥상부의 처마와 내부천정을 지지하는 구조)

西塔は三手先(みてさき)という形式を使っています。

서탑에는 '미테사키(三手先)'란 형식이 사용되었다.

大斗(だいと)、肘木(ひじき)

다이토, 히지키

三手先とは、大斗から肘木がでてその上に斗(ます)が一つ乗る。そのまた上に肘木がでてまた斗が乗り、3つめの斗で軒桁を支えている形式です。

‘미테사키’ 라는 것은, ‘다이토(大斗)’ 로부터 나온 히지키(肘木) 위에 마수(斗) 를 얹는 것이다. 그 위에 또 다른 히지키가 나와 마수를 얹고, 세 개째의 마수로 노키게타(軒桁) 를 지지하는 형식이다.

ところがここのは旧式の三手先で、軒桁を支えるために非常に長く斗が出ていて、特徴的である。 한편, 이 곳에는 노키게타를 지지하기 위해 긴 마수를 사용한 옛 형식의 미테사키가 특징적이다

【法隆寺金堂】

호류사 금당

【薬師寺金堂】

야쿠시사 금당

薬師寺は軽妙でしかも優雅である。また、地震の時は外側だけが揺れて、心柱が揺れない。

야쿠시사는 경쾌하고도 우아하다. 또, 지진시에는 외부만 흔들리고 중심기둥은 흔들리지 않는다.

外側は、初重が右に傾くと、二重が反対に傾き、今度は三重がその反対に傾く、というように互い違いになります。

1 층이 오른쪽으로 기울면, 2 층은 반대쪽으로 기울고, 3 층은 그 반대로 기울어지는 등, 외부는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心柱】

중심기둥

心柱がいつも動かない。これは柔構造であるといわれます。

중심기둥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을 ‘쥬(柔)’ 구조라고 한다.

1300年前にすでに柔構造ができていた、これは昔の人の素晴らしい考えだと思います。

1300년전에 이미 ‘쥬’ 구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塔の屋根より上だと、金堂が高すぎてしまい、両塔を抜いてしまう。三重の軒と金堂の棟とが並ぶように設計されています。

금당의 지붕이 탑보다 높아지면, 금당이 지나치게 높아 양탑을 압도하게 된다. 삼층탑이 처마와 금당이 나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昭和51年に再建された金堂は西岡棟梁苦心の作でした。

昭和51년에 재건된 금당은 니시오카의 고심작이었다.

続いて56年に西塔が復興された。

그리고 56년에 서탑이 복원되었다.

59年には中門が再建された。

59년에는 중문이 재건되었다.

薬師寺復興工事は平成3年の玄奘三蔵院建設から回廊建設へと続けられていくのです。

야쿠시사의 복원공사는平成3년의 ‘겐조산조우(玄奘三蔵)’ 원 건설부터 화랑건설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基壇 (podium)】

기단

基壇の幅は発掘でだいたいわかります。その外側に雨を落とすことを考慮すると、屋根の長さ

が決まる。

기단의 폭은 발굴에 의해 추측 가능합니다. 그 바깥에 비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지붕의 길이가 정해진다.

「堂塔の建立には木を買わずに山を買え」

「건물과 탑의 건립에는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

宮大工の伝統で言われる言葉です。これは伐採された後ではよく木がわからないからです。

‘미야다이쿠(宮大工)’ 세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말이다. 즉, 벌채된 후의 나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山の土質によって木の材質が決まるし、それから山の環境によって木の癖が生まれる。

산의 토질에 의해 나무의 재질이 정해지고, 산의 환경에 의해 나무의 습성이 정해진다.

例えば、木の南に大きな枝が出ていると、そこに風が当たって、いつも西にねじられる。ところが木はまっすぐに育つ性質があるから、それに対抗して育っていく、そうして木の癖が生まれる。

예를 들어, 남쪽에 큰 가지가 생기면 그 곳에 바람이 닿아 나무는 항상 서측으로 비틀어진다.

한편, 나무는 똑바로 자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비틀림에 대항하여 자라려는 나무의 습성이 생긴다.

だから、環境とは風向きを知ると言うことです。

그러므로, 풍향을 알면 환경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そういうことを把握し、桁に向いている木、柱に向いている木、というように、それぞれ生きたままで見当をつけて伐採してもらう。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보와 기둥에 맞는 나무를 채벌 전에 선택한다.

「木は生育の時の方位のままに使え」

「나무는 생육시기의 방위를 사용하라」

これは、例えば山の南側に生えた木は、御堂の南側に持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

예를 들면, 산의 남쪽에서 자란 나무는 건물의 남측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北側に生えた木はお堂の北側に、ということです。

북쪽에서 자란 나무는 건물의 북측에 사용한다.

長年、太陽で訓練された木は、お堂の南側に持っていき、太陽によくあたるところに持ってこなければいけない。

오랫동안 햇빛으로 단련된 나무는 건물 남측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このことは古代の建築—飛鳥・白鳳・天平時代くらいまではよく守られています。だから飛鳥時代の建築は解体することなく1300年くらいの寿命があると私は思う。それは自然の生えたままの方位で木を使ってやるからです。

이런 일은 고대의 건축—’아스카(飛鳥)’, ’하쿠호(白鳳)’, ’텐페이(天平)’ 시대까지는 잘 지켜져 왔다. 그래서 아스카시대의 건축은 해체되지 않고 1300년 정도의 수명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연에서 생겨난 방위 그대로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蛙股(かえるまた)のつくり出し

카에루마타 만들기

まず木があり、そして、木の癖や加工する部材の形に合わせて道具がつくられます。

우선 나무의 습성과 가공하는 부분의 모양에 잘 맞는 도구를 사용한다.

そしてその上に技術がある—と西岡棟梁は考えています。

그리고 그 위에 기술이 있다고 니시오카는 생각합니다.

木の癖を活かすために、手仕事の道具が使われるのです。

나무의 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손도구가 사용됩니다.

工人は、宮大工の仕事とは木の癖を知り、それを組み合わせて堂や塔をつくり上げていくことにある、という西岡棟梁の考え方を身につけていくのです。

미야다이쿠의 일은 나무의 습성을 파악하고 이를 잘 조합하여 건물과 탑을 만드는 것이라는 니시오카의 생각을 배울수 있다.

ヨキによる桁のつくり出し

요키에 의한 보 만들기

今ヨキという道具で削っているのは桁にする木です。道具を使うときには、それが物ではなく自分の肉体の先端だと考えて、自分の魂を木に打ち込むというつもりで力入れて魂をこめないとけません。

‘요키’ 라는 도구를 깎는 것은 보로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물건이 아니라 신체의 한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혼을 나무에 넣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ヤリガンナによる仕上げ

‘야리강나’ 에 의한 마무리

これはヤリガンナという道具です。ヤリガンナで削ると木の色が変わる。本当によく切れる物でないと削れません。

이것은 ‘야리강나’ 라는 도구입니다. 야리강나로 깎으면 나무의 색이 변한다. 정말 잘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깎을 수 없다.

今は、ヤリガンナにする鋼もなかなかいいものがないです。

현재는, 야리강나로 쓸수 있는 쇠를 찾기가 점차 힘들어진다.

ヤリガンナは正倉院の模型を見本に復元された

‘야리강나’ 는 ‘쇼우쇼 (正倉)’ 원의 모형을 견본으로 복원되었다.

粽 (ちまき) の削りだし

치마키 (粽) 만들기

上部の粽といわれる曲線を作っていきます。

기둥상부에 ‘치마키’ 라고 불리우는 곡선을 만듭니다.

これは頭貫 (かしらぬき) の仕口をつくっているところです。

이것은 ‘카시라누키 (頭貫)’ 의 연결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道具を使いこなす—それは技術であるとともに、木を知り尽くすことでもあります。

도구를 사용함 —그것은 기술인 동시에, 나무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木の癖を組み合わせることは工人等の心を組み合わせること」

「나무의 습성을 잘 맞추는 것은 장인의 마음을 잘 맞추는 것」

これはみんなの気持ちが揃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

이는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工人らは、無言のままでどんどん仕事が進んでいきます。

장인들은 말하지 않지만 일은 잘 진행됩니다.

これはちゃんと心が組めていると言うことです。

이것은 마음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百人の工人がいれば百つの心があり、これを一つにするのが匠長の才能である」

「백명의 장인이 있으면 백개의 마음이 있고, 이를 하나로 하는 것이 리더의 재능이다」

工人が13人いますが、一人一人が自分自身で仕事をきめて分業しているから、作業がうまくいく。

장인이 13명 있지만, 각자 일을 정해 분업함으로써 작업이 잘 진행된다.

柱と連子(れんじ)が組み込まれた後、頭貫が通されます。頭貫が通されることで、柱同士が連結され、お互いに線としてつながっ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

기둥과 렌지(連子)가 조립된 후 카시라누키(頭貫)가 연결된다. 카시라누키가 연결되면 기둥들은 하나의 선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次に梁から桁までの組み物を見ていきましょう。

다음은 보에서부터 기둥까지의 구조를 봅시다.

肘木

히지키

蛙股の上の大斗に肘木が乗るところです。

‘카에구마타(蛙股)’ 위에 다이토의 히지키가 놓여집니다.

斗(ます)

마수

回廊の虹梁(こうりょう)の上に斗が5つ乗り、その上に桁が十文字に乗っていきます。

회랑의 ‘코우료우(虹梁)’ 위에 다섯개의 마수가 위치하고 그 위에 보가 열십자모양으로 놓여 있습니다.

木造建築は部材を組み合わせ、つないでいくという考え方で成り立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組み物や継ぎ手は、柔構造建築物の骨格であるのと同時に、関節部でもあります。

목조건축은 부재를 끼워맞춰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재는 ‘쥬(柔)’ 구조건축물의 골격인 동시에, 연결부로도 됩니다.

しかも素材である木には一つ一つ癖があるという特徴があります。

게다가 소재인 나무에는 각기 다른 습성이 있습니다.

ここでは木の癖なりに木ごしらえを担当した大工さんが、見立てた通りに木の癖を活かすよう、部材の組上げまで責任を持つという現場システムになっています。

여기서는 나무를 담당한 장인이 나무의 습성을 살려 부재의 조립까지 책임을 지는 현장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そのことが構造全体に木の癖を活かすことにつながるというのが、西岡棟梁の信念なのです。

이것이 구조전체에 대해 나무습성을 살려가는 니시오카의 신념입니다.

出隅・入り隅(corner)が仮止めされた後、中門に向かって棟桁が通されていきます。

모서리가 일시적으로 부착된 후 중문을 향해 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棟桁の継ぎ手の鎌継ぎです。

이것은 ‘카마즈기(口ぎ手)’ 라는 보의 연결부입니다.

回廊の妻は、中門とつながります。

회랑의 처마끝은 중문으로 이리집니다.

ここに破風 (bargeboard) が納められます。

여기에서 ‘하후우 (破風)’ 가 끝맺는다.

棟桁から軒桁にかけて、地垂木 (じだるき :exposed rafter) が通されていきます。

보와 보에 사이에 ‘지다루키 (地垂木)’ 가 걸쳐져 있다.

地垂木は一本一本和釘で桁に固定します。

지다루키는 하나하나 일본못으로 보에 고정되어 있다.

地垂木の据え付けが終わりました。

지다루키의 고정이 끝났다.

この頂部に野棟 (のむね) が乗ります。

이 가장 윗부분에 노무네 (野棟) 를 얹힌다.

平成4年春、回廊第一期工事はほぼ終わろうとしています。木ごしらえから考えるとおよそ5年という年月が経っていました。

平成4년 봄, 회랑 제1기 공사는 거의 끝나간다. 나무의 준비부터라면 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風雪に耐えて立つ、その姿こそ、建築の本来の姿である。だから建物には一千年以上の命を与えねばならない—それが西岡棟梁の建築に対する考え方であり、信念なのです。

바람과 눈을 견디어내는 그 모습이 건축 본래의 자태이다. 그러므로 건물에는 천 년이상 수명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그것이 니시오카의 건축에 대한 생각이고 신념입니다.

何事をするにも魂を込めてやれ。

무엇을 하든 혼을 불어넣어라.

研ぎもの一つにも自分の魂が道具の先を伝って外に出ていく。

도구를 연마하는 것 하나에서도 자신의 혼이 그 끝에 전달되어 표출된다.

そうして磨きあげられた道具でもって木に打ち込めば自分の魂を木に打ち込める。

이런 식으로 도구를 사용한다면 자신의 혼을 나무에 넣을수있다.

「堂塔の用材は木を買わずに山を買え」

「건물과 탑의 재료로는 나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산을 사라」

「木は生育の時の方位のままに使え」

「나무는 생육시의 방위를 그대로 사용하라」

「堂塔の木を組み合わせることは木の癖を組み合わせる事。木の癖を組み合わせることは工人等の心を組み合わせる事」

「건물과 탑의 나무를 조립하는 것은 나무의 습성을 조립하는 것, 나무의 습성을 조립하는 것은 장인의 마음을 조립하는 것」

「百人の工人がいれば百つの心があり、これを一つにするのが匠長の才能である」

「백명의 장인이 있으면 백개의 마음이 있다, 이것을 하나로 묶는것이 장장의 재능에 있다.」

これらは西岡建築の根幹にある考え方なのです。

이것이 니시오카 건축의 근본 생각입니다.

7. 戸建て住宅の構法

7. 단독주택의 구법

戸建て住宅の構法

단독주택의 구법

明治大学理工学部教授 内田祥哉 (uchida yoshichika)

메이지대학 이공학부 교수 (우치다쇼우야)

今回の「構法」というのは建築の構成方法という意味です。どのような道具 - 屋根、床や壁とか、断熱や遮音、雨仕舞 (防水という意味です) に関係するすべての材料 - を使い、どのように家を組み立てるかという組み立て方のことを言います。

이번에 말하는 구법이라는 것은 건축의 구성방법이라는 의미다. 어떤 도구 - 지붕, 바닥, 벽 혹은 단열과 차음, 방음에 관련된 모든 재료 - 를 사용해서, 어떤 식의 집을 짓는가 하는 방법을 말한다.

これは、江戸時代17世紀後半に建てられた山梨県の農家である。垂直材である柱と、水平材である梁とが巧みに組み合わされている。

この柱と梁を基本にした軸組式の構法が日本の木造建築の特徴である。

이것은 에도시대, 17세기 후반에 세워진 야마나시현의 농가이다. 수직재인 기둥과 수평재인 보가 조합되어 있다.

이 기둥과 보를 기본으로 한 축조식 구법이 일본목조건축의 특징이다.

一方この農家は、18世紀初めに富山県で建てられた「合掌造り」である。

この小屋組は雪深い山村で生まれた形式で、先ほどの農家に比べ、はるかに太い柱と梁を使用している。

한편, 이 농가는 18세기 초, 토야마 현에서 세워진 갓가쇼우즈구리각?

이 작은 지붕조는 눈이 많은 산촌에서 생긴 형식으로, 앞의 농가에 비해 확실히 두터운 기둥과 보를 사용하고 있다.

このように日本各地で自然の風土に適応した特徴ある住まいが生まれた。

しかし、地域差があるにしても、全国に普及した基本的な構法は同じである。

이런식으로 일본각지에서 자연풍토에 적응시킨 특징있는 주거가 생겼다.

그러나, 지역차가 있어도 전국에 보급된 기본적 구법은 같다.

伝統的な軸組式構法では、「継ぎ手」、「仕口」という木材を組み合わせる技術が発達した。

전통적인 축조식구법에서는 갓쓰기테각각 갓시구찌각 (연결) 라는 목재를 조합하는 기술이 발전했다.

例えばこれは「金輪 (かなわ) 継ぎ」と言っていて、木材を直線につなぐ継ぎ手の一種で、主に柱に用いられている。

예를 들어 이것은 갓가나와쓰기각라고 하고, 목재를 직선으로 연결한 쓰기테의 일종으로, 주로 기둥에 사용된다.

仕口は木材を直角につなぎ合わせる技術である。

시구찌는 목재를 직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在来構法 (conventional method of construction) も、柱と梁を基本にした軸組構法だが、伝統的構法と根本的に異なる点は、金物を使用しているという点にある。基礎と上部構造の間、また、継ぎ手・仕口の部分が、金物で補強されている。

종래구법도, 기둥과 대들보를 기본으로 한 축조구법이지만, 전통적 구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금속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기초와 상부구조의 사이, 또, 쓰기테, 시구찌의 부분이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다.

それでは在来構法が受け継いだ、伝統的構法の最も大きな特徴とは何だろうか。

그렇다면, 종래구법이 계승해 온, 전통적 구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これは、19世紀中頃に建てられた長野県の町家である。

お客様をもてなす座敷には書院造り (palace style) の特徴が見られる。部屋は長押 (なげし) をめぐらし、欄間がついて、障子、板戸などの引き違い戸で間仕切られている。

この住まいづくりの高度な技術を身につけた職人には、屋根、畳、建具、障子ごとの専門家がいて、相互に連絡を取り、相手の仕組みが理解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た。

それは、柱と柱の間の寸法基準が、規格化されていたためである。

이것은 19세기중반에 세워진 나가노현의 민가다.

손님을 대접하는 다다미방에서는 쇼인쓰꾸리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방은 나게시 (나무로 된 띠) 둘러싸서, 란마 (통풍은 가능한 반투명의 칸막이) 가 붙어, 쇼, 이타도등의 여닫이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주택건축의 고도의 기술을 몸에 익힌 장인은, 지붕, 창과 문, 건축화된 가구, 쇼지 각각의 전문가가 있어, 상호 연락을 가지면, 상대방의 계획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기둥과 기둥사이의 촌법기준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1間・約900mm (図挿入)

日本の平面計画は、およそ90センチのモジュールを持つグリッド状に構成されている。2モジュールを「一間」といい、壁も開口部も原則としてこのモジュールで形成されている。

1 한칸・약 900 mm

일본의 평면계획은 900 센티의 모듈을 가진 그리드상에 구성된다. 2 모듈을 한칸이라고 해, 벽도 개구부도 원칙적으로 이 모듈로 형성된다.

そのため、畳、ふすま、障子なども規格化でき、よく区分されたきわめて柔軟な*オープンシステムをつくりあげていった。

このように伝統的構法に見られる建築のシステムは、今日の住宅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

(*注: 市場に流通している不特定な建材を用いて建築物を構成するシステム)

그때문에, 다다미, 미닫이, 쇼우지등도 규격화가 가능해져 잘 구분된 더없이 유연한 오피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전통적 구법에서 볼수있는 건축의 시스템은 오늘날의 주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주: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불특정적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구성하는 시스템)

關東大震災

1923年、東京をおそった関東大震災は、日本の建築構法に新たな流れを加えた。東京工業大学の田辺平學 (たなべ・へいがく) 教授は、戦災の反省から都市の不燃化を主張し、1948年、木造建築の各部材をコンクリートの不燃材に置き換えるという発想を実現させた。

(s) 관동대지진

1923년, 도쿄를 놀래킨 관동대지진은 일본의 건축구법에 새로운 흐름을 가했다. 도쿄공업대학의 와타나베 헤이가쿠 교수는 전쟁재해의 반성으로부터 도시의 불연화를 주장해, 1948년 목조건축의 각부재를 콘크리트 불연재로 바꾸는 발상을 실현시켰다.

工大式組立鉄筋コンクリート住宅

これが、工大式組立鉄筋コンクリート住宅、いわゆるプレコン (precast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である。

(s) 코다이식 조립철근콘크리트 주택

이것이 코다이식 조립철근콘크리트 주택, 즉 프레콘이다.

トヨライトハウス

つづいて1958年、プレコンを改良して、「トヨライトハウス」が誕生した。これは、柱と梁と筋交いとを一体化したパネル構造である。

토요라이트 하우스

계속해서, 1958년, 프레콘을 개량해서 각갓토요라이트 하우스갓가 탄생했다. 이것은, 기둥과 보와 대각선연결재를 일체화한 판넬 구조이다.

量産公営住宅

さらに、トヨライトハウスのシステムの量産性とコストに注目し、中型のコンクリートパネルによる、「量産公営住宅」がつくられた。

대량생산 공공주택

게다가, 토요라이트 하우스의 시스템의 대량생산성과 비용에 주목해, 중형의 콘크리트 판넬에 의한 갓대량생산 공공 주택갓을 만들수 있었다.

このような独自の展開を見せた中型パネルの他にも、注目すべき動きがあった。

それは戸建てのプレハブ住宅が誕生したことである。

이런 독자의 전개를 보인 중형 판넬 외에도 주목할만한 움직임이 있다.

그것은 단독주택의 프레하브주택이 탄생한 것이다.

ミゼットハウス

1959年、「ミゼットハウス」という、6畳のプレハブ勉強部屋が販売された。これは、住宅の既製品と言われて人気を集め、やがて平屋建の住宅へと発展した。

미짚하우스

1959년, 「미짚하우스」라는 6조의 프레하브의 공부방이 판매되었다. 이것은, 주택의 기제품이라고 말해지는 인기를 함해, 곧 단층주택으로 발전했다.

プレハブ住宅の主流は軽量鉄骨造で、幅の小さいパネルによって躯体部分を構成する中小型パネル構法が主体であった。

프레하브주택의 주류는 경량철골조로, 폭이 좁은 판넬에 의한 구체부분을 구성하는 중소형 판넬 구법이다.

屋根工事

지붕공사

外壁パネル取付

외벽판넬 집합

プレハブ新設住宅着工戸数・千戸・年 (グラフ挿入)

飛躍的に成長してきたプレハブ住宅 - その要因の一つに間取りがある。

프레하브신설주택 착공호수・천호・연도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프레하브주택 - 그 요인의 한가지로 방배치를 들수 있다.

それは部品をあえて大型にしないで自由度を高め、伝統的住宅の持っていた間仕切りの自由度をプレハブ住宅に導入したことである。

그것은 부품을 구태어 대형으로 하지 않고도 자유도를 높여, 전통 주택이 가진 방배치의 자유도를 프로하브주택에 도입한 것이다.

また、1970年頃商品化されたユニット構法は、パネル構法と並び、大きく普及した。

또, 1970년경 상품화된 유닛 구법은, 판넬구법과 병행해 크게 보급되었다.

ユニット構法は、工場で可能な限りの加工、仕上げを施したボックスユニットをつくり、現場でこれらをジョイントするだけの構法である。

유닛구법은 공장에서 가능한 가공, 마무리를 행한 박스유닛을 만들어, 현장에서 이것들을 잇기만 하는 구법이다.

2×4新設住宅着工戸数・千戸・年（グラフ挿入）

2×4住宅が1974年にオープン化されて（売り出されて）以来、急速に普及してきた。

2 x 4 신설주택 착공호수・천호・연도

2 x 4 주택이 1974년에 판매된 이래, 급속히 보급되어 왔다.

基本となるのは枠組壁構法で、床、壁、屋根といった各箇所は、枠組み材と面材が一体化されたパネルを形成している。

기본이 된것은 거푸집 벽구법으로, 바닥, 벽, 지붕 각각은 거푸집재와 면재가 일체화된 판넬을 형성하고 있다.

1980年、建設省の住機能高度化推進プロジェクトの一環として、センチュリーハウジングシステム（CHS）の研究が始まった。

1980년, 건설부의 주거능 고도화 추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센트리 하우스링 시스템(CHS)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CHS住宅

これは、100年住宅 - つまり耐用性の高い住宅の供給を目的とした、設計、生産、供給さらに維持管理までもふくめたトータルシステムを構築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CHS주택

이것은 100년 주택 - 즉 내성이 높은 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한 설계, 생산, 공급, 거기에 유지관리까지도 포함한 토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また、配管スペースや点検口を確保し、合理的に維持管理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このように、CHS住宅には伝統的構法に見られる職人による建築分業システムの思想、つまり、部品の組み合わせ技術が受け継がれている。

또한, 배관 스페스와 점검구를 확보해서,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CHS 주택에는 전통적 구법에서 볼수 있는 장인에 의한 건축분업시스템, 요컨대 부품조합기술을 받아들였다.

これからの住宅は、ひとつには高齢化に備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職業が多様化していく中で、在宅勤務に備え、家庭内に様々な機器が入ってくることを考慮しなければいけない。一方、つくる側では、これから高齢化により若い労働者が少なくなる。それに応じて、現場の労働力が少なくて済むプレハブ化もさらに進めなくてはいけない。

そしてCADなどの導入といった、トータルに手間がかからない構法を進められていくべきだと

私は考える。

이제부터의 주택은, 노령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직업이 다양화해져가는 중에, 재택근무에의 대응, 가정내의 다양한 기기가 들여놓는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건축하는 측에서 보면 이제부터 고령화에 의해 젊은 노동자가 적어진다. 그것에 대해, 현장의 노동력이 줄어드는 프레하브화도 함께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CAD 등의 도입과, 총체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구법을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住宅は、需要と供給、つまり求める側とつくる側の共存共栄が続く、複合化の時代に入ったと言える。

주택은 수요와 공급, 즉 구하는 측과 만드는 측의 공존공영가 계속되어 복합화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말할수 있다.